

지역 소식통

부안군,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부안군은 설 연휴기간(2022년 1월 29일~2월 2일 5일간) 중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대량환자 발생 시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와 병의원 25개소, 약국 27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2개소를 설 연휴기간 중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으로 지정 운영해 연휴기간 진료공백 방지와 군민들의 진료 및 약품구입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부안성모병원과 해성병원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및 대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유지와 대응태세를 강화했으며 특히 위도면은 지난해 11월 신규 조성된 닥터헬기 이착륙장이 의료취약지역인 위도에서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발작물 갈습유황 비료 지원 효과 기대

고창군이 발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갈습유황 환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올해 5억 원 사업비를 들여 농협과 함께 8만8000여포(1포 20kg)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1포당 5650원이며 사업 신청과 비료 공급은 농협을 통해 이뤄진다.

갈습유황비료는 작물 생육과 병해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세파막 강화로 저장성 향상, 토양 내 통기성과 투수성 개선으로 뿌리 발육이 촉진돼 토양 개량 효과가 높다. 갈습유황비료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인 높을고창 브랜드가 전국 어디서나 최우수 농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창군청 조우삼 농생명지원과장은 "토양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 힐링명소 될 것”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사업 ‘속도’ … 스카이워크 · 내부도로 등 하반기 완공 계획

국내 최대 규모 편백숲을 자랑하는 고창군 문수산에 올 연말 스카이워크 등이 들어선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산림청과 함께 하는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사업(고창읍 월산리 산45번지 일원)’이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은 정상부에서 치유센터까지의 ‘스카이워크’ 설치가 핵심이다. 고창군 시가지 조망이 가능하고 경관조경 등이 설치돼 새로운 야간관광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은 정상부에서 치유센터까지의 ‘스카이워크’ 설치가 핵심이다. 고창군 시가지 조망이 가능하고 경관조경 등이 설치돼 새로운 야간관광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사업 '속도' ... 스카이워크 · 내부도로 등 하반기 완공 계획

원과 치유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차장(53대 동시주차)과 진입로 · 내부도로, 관리동 및 다목적실, 휴게편의시설 등의 공事も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림청 ‘문수산 산림치유센

터’도 연말에 준공 예정이다. 산림치유센터는 해양(구시포 등 해변, 갯벌)·내륙습지(고인돌·운곡습지)·산림(선운산 방장산 문수산)·온천을 연결하는 고창 치유문화도시의 핵심 축을 담당하게 된다.

문수산은 편백나무 외에도 천연기념물(제463호)로 지정된 단풍나무숲을 비롯해 고로쇠나무, 비자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등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단풍을 자랑한다.

고창군청 김성근 산림공원과장은 “편백숲이 지닌 다양한 건강증진 효과를 활용해 최고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설 명절 대비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 펼쳐

정읍시, 연휴기간 사적 모임 · 다른 지역 이동 자제 등 강력 ‘권고’

정읍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읍시 공무원 20여 명은 24일 샘고을시장 일원에서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강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많은 소비자가 찾아오는 만큼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일러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 시민 방역 행동 수칙을 안내했다. 또 사적 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방역 수칙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연휴 기간 모임과 다른 지역 이동 자제,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다중시설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에 대한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샘고을시장 상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위해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전통시장에 대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이 믿고 찾는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사적 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되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제한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설 명절맞이 복지시설 · 단체 ‘위문 방문’ 나서

정읍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친다. 시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고자 총 1억2600만원 상당의 각종 위문품과 위문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45개소를 비롯해 경로당 72개소와 저소득층 · 저소득 한부모가족 494세대, 위기가구 164세대 등이다.

시는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소외되는 일 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골고루 지원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한 유진섭 시장과 공무원들은 24일 장애인 생활시설 신대인 전사바울과 신대인 에렌요양원을 방문해 백미와 물티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또 요양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24일부터 28일까지를 설맞이 이웃돕기 실천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세심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히 정읍시장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읍·면·동장 등 공직자들은 이 기간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에 나섰다.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

정읍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기대

정읍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에 나섰다.

시 직원들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전통시장 장보기 기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식당을 이용하고 장보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을 느끼며 알뜰하게 제수용품을 준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지난 21일에는 태인면사무소 직원들이 신대인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다.

직원들은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구매할 정향누리 상품권과 운누리 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과 설 명절에 사용할 성수품을 구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와 더불어,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과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릴레이 장보기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저렴하게 성수품도 구매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설 명절을 맞이한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샘고을시장을 비롯한 연리지장, 신대인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또,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 예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 물가인정 자체 관리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시장 영상 간부회의 주재, 민생안정 총력

유진섭 시장이 24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유 시장은 의료 · 방역, 재난재해, 물가,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생활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로 깨끗한 도시환경과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폐기물 배출일을 알리고, 기동 청소반과 읍·면·동별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출 것을 주문했다. 또 중앙부처와 전북도의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해 시행하고 있는 용역 추진에 민정을 다해 전략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정기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4명의 국장을 비롯해 실 · 과 · 소장급 팀장 등은 하루빨리 업무를 숙지하고 올해 예산확보와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